

#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김성희<sup>1</sup>, 김성해<sup>1\*</sup>  
<sup>1</sup>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 Foreign Workers' Acculturative Stress in Korea Society

Sunghae Kim<sup>1</sup> and Sung Hae, Kim<sup>1\*</sup>

<sup>1</sup>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한국에 이주한 노동자들이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123명의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자료는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수집되었으며 SPSS WIN 18.0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7개 하위영역 중 향수병과 차별감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며, 고졸 졸업자가 중졸이하보다, 모국 공동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영역별 차이 중, 차별감, 향수병, 문화충격, 모국 공동체가 없는 경우 및 공공장소에서의 부당대우를 경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동거하는 경우보다 향수병을 더 느끼며, 남자가 여자보다, 고졸이 중졸이하 보다,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죄책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건전하게 적응하기 위한 향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acculturative stress in foreign workers in Korea. The data of 123 subjects were collected from January to May, 2010, and analyzed using the SPSS WIN 18.0 program to compar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acculturative stress. The results: The highest score among 7 subcategories of acculturative stress was homesickness, followed by discrimination. Subjects who had high school diploma were more likely to have acculturative stress than those who were middle school graduates or lower. Those who did not have the community with their homeland people experienced acculturative stress more than those who had. The 7 subcategories showed that those who had homesickness, the sense of being discriminated, culture shock, the homeland community, and the experience of unfair treatment in public had acculturative stress more than their counterparts. Those who did not live with their spouses had homesickness more than the counterpart. Male subjects, those with high school diploma, and those who did not live with their spouses appeared to have guilty feelings more often than their counterpar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further studies on foreign workers so that they could adjust themselves well to the Korean society.

**Key Words** : Acculturation, Foreign Workers, Stress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의 대량 유입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다른 나라에서 유급

활동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예정인 자를 의미하며[1],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자신의 생활 근거지를 벗어나 타 지역에 이주하여 취업한 노동자를 의미한다.

1990년대 초 주택시장의 건축 붐으로 인해 제조업 노동력이 건설업으로 유출되면서 심각한 인력난의 대안으로 이주노동자가 유입되었고, 국내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

\*Corresponding Author : Sung Hae, Kim(Chung-Ang Univ.)

Tel: +82-10-4320-3420 email: sunghae@cau.ac.kr

Received May 30, 2013

Revised (1st July 2, 2013, 2nd August 5, 2013)

Accepted August 7, 2013

상승, 3D 업종 취업 기피 현상이 맞물리면서 동남아시아 및 중국으로부터 이주노동자가 대량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단일민족 국가로 성장해온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라는 긍정적 측면보다 한민족에 대한 정체성 상실, 다문화라는 익숙하지 않은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이라는 새로운 사회와 문화를 경험하면서 적응해야 하는 개인적 과업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이주노동자들의 국내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이들이 한국이라는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1-3]. 실제 이주노동자는 고용 불안정, 임금차별 및 체불, 의료를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 제도 혜택의 제한을 경험하는 등 인권 침해가 문제시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를 이른바 '취약계층'으로 인식하고 이들이 국내사회에 자리 잡는 동안 건전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Berry[4]는 인간은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를 적응하면 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여 이를 문화적응 스트레스라 하였다. 이주노동자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하는 주체로, 이주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구체적 정의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당연한 현상이다. 새로운 문화를 학습하고 적응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소외감 등의 정신적 변화는 물론 행동, 가치, 태도의 변화를 초래한다[5]. 이렇듯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사회적 통합을 어렵게 하고 개인에게는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주노동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과 같은 개인의 건강상태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이들이 겪는 고통과 역기능의 단면으로 여겨지기도 한다[6]. 이러한 역기능으로 인한 반사회적 행동 범죤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고 이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책이 미흡함을 반영하고 있다[7]. 실제 Im & Lee[1], Griffin & Soskolne[8]의 연구에서도 타문화로부터 이주한 노동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파악하여 이를 중재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 요인 및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초기 노동인력들이 대거 유입되던 시기에는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이주여성 또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건강상태,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3,5,6,9-11]. 그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

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주여성의 스트레스, 건강상태, 지역사회적응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2,5,9-11], 실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사업 및 인식개선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이주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7,12-15]. 따라서 조선족뿐만 아닌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이주한 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정도나 영향 요인에 대한 학문적 결론을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인한 시대 변화는 지역사회 환경 변화를 수반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는 어떠한지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이주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기초자료의 추가 수집을 통해 현 사회를 바라보고, 이들이 이주노동자로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노력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국내 유입이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계속 증대될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여 이주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응하고 안정된 정착을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이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한 개인의 건강상태는 물론, 이로 인한 반사회적 행동 등의 사회적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의 근거자료로 뒷받침 해 줄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이들의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 등 사회제반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고, 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 및 사회제반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1)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 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연구의 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파악하

기 위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전체이다. 하지만 이들의 정확한 숫자와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접근 용이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대상의 표집은 비확률적 표집방법인 임의표집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주노동자란 Kim[15]이 제시한 정의에 따라 '국내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나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 본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종교단체의 협조 하에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2개 기관의 이주노동자 무료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사람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도구는 Sandhu와 Asrabadi[16]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Lee[17]가 한국어로 번역역과 역번역의 과정을 거쳐 문화이입과정스트레스 척도를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총 36문항 7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자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 국한되어 인종 및 피부색과 관련된 2개 문항을 삭제한 총 34개 문항의 7가지 하위영역으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평정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총 170점 만점으로 총점 및 각 영역별 점수를 5점으로 표준화한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7개의 하위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차별감은 '한국인은 나에게 편견을 가지고 차별한다고 느낀다' 등 6문항(3, 9, 11, 14, 17, 22번 문항), 2) 향수병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다' 등 5문항(1, 6, 20, 32, 34번 문항), 3) 적대감은 '한국인들은 말은 안하지만 적대감을 보인다' 등 5문항(4, 15, 19, 23, 30번 문항), 4)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과 접촉을 꺼릴 때가 있다' 등 3문항(7, 25, 28번 문항), 5) 문화충격은 '한국음식에 적응하느라 힘들다' 등 3문항(2, 13, 21번 문항), 6) 죄책감은 '나의 조국의 친구들과 가족을 떠나 한국에 온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등의 2문항(10, 31번 문항), 7) 기타에는 '한국에서 말을 하려고 노력할 때는 언제나 신경이 곤두선다'

등의 10문항(5, 8, 12, 16, 18, 24, 26, 27, 29, 33번 문항)이다. 원 도구의 신뢰도는 Lee[1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3$ 이었으며 이후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Lee[1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4$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5$ 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자료수집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7,12-15] 연령, 결혼 유무, 문화공동체 유무 등 의미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특성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 2.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였으며, 서울의 한 종교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센터 2개 기관에서 이루어졌다. 두 곳의 무료 건강검진센터는 격주 일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연구자는 무료 건강검진센터의 위원장에게 서면을 통해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얻어 연구진행을 승인 받았다. 본 연구자가 무료검진을 받기 위해 센터를 찾아온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구두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자 2명과 함께 2년간 이주노동자 건강검진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보조원 6명을 포함한 총 8명이 시행하였다. 자료수집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전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은 이주노동자가 설문지 각 문항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일치도 훈련을 실시하였다. 먼저 설문지 각 문항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2회 가졌으며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다시 확인하고 일치도 훈련을 하였다. 일치도 훈련은 다음 2가지 항목을 주력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설문지 각 문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각 문항 별 연구자 2인이 연구보조원 6인에게 문항의 의미를 설명하고 설명한 의견과 상이한 부분을 추가 확인한 후 각 문항의 의미를 최종 정의하였다. 둘째, '의사전달의 정확성 및 오류확인'으로 각 문항의 모의 질의 응답을 통해 교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1회에 걸쳐 각각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과정을 통해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 간 각 문항에 대한 점수 일치도 확인을 시행하였으며, 최종 일치도가 97.7%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어로 제작된 설문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자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한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정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한 정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중국 및 인도네시아 국적을 지닌 대상자를 통역자로 선별하였다. 또한 자료수집의 신뢰도를 위해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은 통역자로 선별된 대상자에게 본 설문 항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달이 가능하도록 2시간 이상 면대면 교육을 시행한 후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검증한 후 1회의 예비조사를 통해 이해도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30-40분으로, 총 배부된 150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7부를 제외한 123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는 t-검정, ANOVA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p<.05).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총 123명으로서 남자가 26.8%, 여자가 73.2%로, 연령은 21-71세의 범위로 평균 47.4(±13.19)세 이었다. 국적은 중국이 77.7%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네시아가 8.3%, 베트남이 4.1%의 순이었고, 종교는 무교가 60.2%로 과반수 이상 이었으며, 기독교가 28.5% 순 이었다. 학력은 고졸이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도 18.7%를 차지하였다. 결혼상태는 81.3%가 기혼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34.1%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26.0%가 흡연자로, 1일 평균 흡연량은 1-20개피의 범위로 평균 9.7(±6.2)개피이며, 대상자의 30.1%가 1일 0.5-3잔의 술을 마시며 1일 음주량은 평균 1.6(±0.8)잔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체류한 기간은 평균 42.0(±32.2)개월로 5년 이상인 체류한 대상자가 37.4%로 가장 많았다. 월 소득은 120만원 이하인 경우가 56.9%로 120만원 이상인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의 사유로는 ‘직장 상사와 사이가 안 좋아서’가 11.5%이었으며 ‘직장 동료와 사이가 안 좋아서’는 7.7%로, 직장 내 상사나 동료와의 문제로 인한 경우가 19.2%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에 ‘숙소에서 휴식한다’는 대상자가 가장 많았으며(50%), ‘종교활동을 한다’(12.1%), ‘운동을 한다’(9.5%)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에 배우고 싶거나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다중응답에서는 ‘컴퓨터 및 신기술’이 42.7%, ‘종교적 활동’이 30.7%, ‘한국어’가 30.5%, ‘영어 등 다른 언어’가 25.5%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연락은 월 평균 8.6(±11.94)회로 5회 미만인 경

우가 61.8%로 5회 이상인 경우보다 많았다. 연락방법으로는 전화가 94.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는 e-mail이나 모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통한 방법이었다. 한국에 모국공동체가 있는 경우는 27.6%로 모국공동체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모국공동체가 하는 일로는 ‘친목도모’가 51.2%, ‘직업알선’이 26.8%, ‘언어교육’이 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로는 ‘비자문제’가 42.4%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인의 편견’이 31.4%, ‘귀화법’이 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67.5%가 한국인 친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외국인이기 때문에 불친절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23.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인과 잘 지내기 위해서’가 33.1%로 가장 많았다.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국친구들과 이야기 한다’가 30.0%로 가장 많았으나, ‘혼자서 참는다’는 경우도 14.4%로 나타났다.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한국인과 상담한 적이 있는 경우는 55.3%가 그 대상을 ‘동료직원’으로 응답하였다.

### 3.2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는 다음과 같다 [Table 1].

[Table 1] Scale of subjects' Acculturative Stress

(N=123)		
Scales	M	SD
Sense of discrimination	2.53	.78
Homesick	3.00	.64
Sense of hostility	2.24	.73
Fearfulness	2.37	.81
Cultural shock	2.50	.82
Guilt feeling	2.49	.90
Others	2.52	.68
Total	2.54	.64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54(±.64)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7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한 결과, 향수병이 3.00(±.6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차별감 2.53(±.78)점, 기타 2.52(±.68)점, 문화충격 2.50(±.82)점, 죄책감 2.49(±.90)점, 두려움 2.37(±.81)점, 적대감 2.24(±.73)점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별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면 ‘나는 나의 조국과 그 곳 사람들이 그림다’가 3.76(±.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

를 괴롭힌다'가 3.40(±1.05)점, '나는 가족과 친구들을 남겨두고 떠난 것이 슬프다'가 3.11(±1.2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내 문화의 가치에 대해 비웃는다'가 2.13(±.9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나는 내가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 사귀려 하지 않는다'가 2.17(±1.01)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는 대상자의 성별( $t=1.668, p=.098$ ), 연령( $F=.018, p=.997$ ), 종교유무( $t=.725, p=.470$ ), 결혼상태( $t=-.383, p=.703$ ), 배

우자와의 동거여부 ( $t=-1.276, p=.204$ ), 흡연여부( $t=.663, p=.509$ ), 음주여부( $t=1.141, p=.258$ ), 한국 체류기간 ( $F=.054, p=.948$ ), 월소득( $t=-.897, p=.372$ ), 가족과의 연락 횟수( $t=-.438, p=.663$ ), 한국인 친구 유무 ( $t=-1.077, p=.284$ ), 공공장소 부당 대우 경험 유무( $t=1.795, p=.078$ )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사후분석 결과 고졸이 중졸 이하 학력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가 높으며( $F=3.533, p=.033$ ), 모국 공동체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 $t=2.545, p=.013$ )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7개 하위영역별로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다 [Table 4].

[Table 2] Each items of subjects' Acculturative Stress

(N=123)

No	Item contents	M (SD)
1	I suffer from homesickness	3.40 (1.05)
2	I feel uncomfortable to adapt to new foods	2.54 (1.17)
3	I am treated in a different way under the social circumstances	2.55 (1.09)
4	Other people mock at the cultural value I have	2.13 (.96)
5	I am nervous whenever I try to speak in Korea	2.44 (1.19)
6	I am sad that I live in unfamiliar environment	2.52 (1.01)
7	I worry about personal safety because of different culture	2.42 (.99)
8	I hesitate to take part in social activity in Korea	2.47 (1.03)
9	People have a prejudice against me	2.29 (.99)
10	I feel guilty that I came to Korea leaving my family and friends in my country	2.70 (1.19)
11	I can't have many chances to succeed here in Korea.	2.65 (1.11)
12	I get angry with the thought that people from abroad like me	2.68 (1.19)
13	I feel some pain since I came to Korea	2.31 (.99)
14	I feel like I am dealt unfairly	2.43 (1.07)
15	people in Korea don't say anything but they hate me	2.14 (.99)
16	I get hurt when people here don't understand my cultural value	2.64 (1.09)
17	My worth is not accepted	2.50 (1.10)
18	I am daunted because of cultural background I have	2.31 (1.02)
19	People here don't estimate my cultural value correctly	2.58 (1.00)
20	I long for my country and people there	3.76 (.98)
21	I have a difficult time to adapt to new culture.	2.74 (1.09)
22	I feel that people like me from foreign country is discriminated here.	2.74 (1.14)
23	People show me their feeling of hatred as an act	2.19 (1.06)
24	I feel I am in a low position in this society because of my cultural background.	2.59 (1.16)
25	I am not safe here.	2.38 (1.06)
26	I don't feel I belong to any position here	2.52 (1.10)
27	I feel sad when I think of the problems people from abroad	2.95 (1.15)
28	I avoid outside activity because of fearfulness of new environment	2.33 (1.06)
29	I think people don't want to make friends with me because they treat me as a foreigner	2.17 (1.01)
30	People here show me the feeling of hatred as a language	2.25 (1.08)
31	I feel guilty that I live in a different way of life here	2.29 (1.00)
32	I am sad that I came here leaving my family and friends behind me.	3.11 (1.24)
33	I worry about my future because I can't decide whether to stay here or go back to my country	2.55 (1.17)
34	I'm usually alone because of inconvenience for Koreans	2.38 (1.03)

[Table 3] Difference of Acculturative Stress according to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123)

Variables	Categories	N(%)	M	SD	t or F	p
Gender	Male	33(26.8%)	2.70	.53	1.668	.098
	Female	90(73.2%)	2.48	.66		
Age (years)	<35	27(22.0%)	2.55	.42	.018	.997
	35-50	29(23.6%)	2.53	.63		
	51-60	45(36.5%)	2.55	.74		
	60<	22(17.9%)	2.51	.70		
Religion	Have	49(39.8%)	2.59	.69	.725	.470
	None	74(60.2%)	2.50	.58		
Education	≤Middle School	49(39.8%)	2.33 <sup>(a)</sup>	.66	3.533	.033*
	High School	51(41.5%)	2.69 <sup>(b)</sup>	.62		
	≥College	23(18.7%)	2.52 <sup>(a,b)</sup>	.54		
Marriage status	Married	100(81.3%)	2.55	.67	-.383	.703
	unmarried	23(18.7%)	2.48	.48		
Living with spouse	Yes	42(34.1%)	2.43	.66	-1.276	.204
	No	81(65.9%)	2.59	.62		
Smoking	Yes	32(26.0%)	2.67	.50	.663	.509
	No	81(74.0%)	2.55	.67		
Alcohol	Yes	37(30.1%)	2.67	.44	1.141	.258
	No	86(69.9%)	2.53	.70		
Living years in Korea	<2 years	44(35.8%)	2.56	.63	.054	.948
	2-<5 years	33(26.8%)	2.55	.61		
	≥5 years	46(37.4%)	2.51	.69		
Monthly income	<120 millionwon	70(56.9%)	2.40	.76	-.897	.372
	≥120millionwon	53(43.1%)	2.53	.60		
Contact with family	<5 times/month	76(61.8%)	2.58	.61	-.438	.663
	≥5 times/month	47(38.2%)	2.64	.61		
One's country community	Have	34(27.6%)	2.43	.65	2.545	.013*
	None	89(72.4%)	2.80	.52		
Korean friend	Have	83(67.5%)	2.51	.65	-1.077	.284
	None	40(32.5%)	2.66	.57		
Experience of unfair treat	Have	29(23.6%)	2.87	.57	1.795	.078
	None	94(76.4%)	2.54	.57		

\*p&lt;.05, Post hoc tests: dunnett T3 (a)&lt;(b)&lt;(c)

[Table 4] Difference of Acculturative Stress Subcategories according to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123)

Variables	Categories	Discrimination	Homesick	Hostility	Fearfulness	Cultural shock	Guilt feeling	Etc
		M(SD)	M(SD)	M(SD)	M(SD)	M(SD)	M(SD)	M(SD)
Gender	Male	2.63(.64)	3.13(.61)	2.40(.68)	2.53(.76)	2.58(.76)	2.85(.89)	2.65(.57)
	Female	2.49(.83)	2.95(.65)	2.18(.74)	2.31(.83)	2.47(.85)	2.34(.86)	2.46(.72)
	t	.904	1.418	1.537	1.469	.726	3.138	1.400
	p	.368	.144	.127	.144	.469	.002*	.164
Religion	Have	2.58(.87)	3.03(.76)	2.33(.74)	2.41(.83)	2.58(.82)	2.44(.94)	2.53(.74)
	None	2.50(.72)	2.98(.55)	2.18(.71)	2.35(.80)	2.44(.82)	2.52(.88)	2.51(.64)
	t	.635	.388	1.204	.393	.998	-.520	.149
	p	.526	.699	.231	.695	.390	.604	.882

\*p&lt;.05

[Table 4] Difference of Acculturative Stress Subcategories according to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Continued) (N=123)

Variables	Categories	Discrimination	Homesick	Hostility	Fearfulness	Cultural shock	Guilt feeling	Etc
		M(SD)	M(SD)	M(SD)	M(SD)	M(SD)	M(SD)	M(SD)
Age	<35	2.45(.52)	3.09(.61)	2.21(.48)	2.40(.12)	2.55(.67)	2.77(.67)	2.52(.50)
	35-<50	2.57(.76)	3.03(.72)	2.20(.68)	2.32(.76)	2.55(.85)	2.53(.87)	2.53(.62)
	50-<60	2.57(.86)	2.99(.68)	2.24(.92)	2.41(.97)	2.40(.88)	2.41(.88)	2.53(.80)
	60≤	2.48(.95)	2.84(.56)	2.42(.92)	2.31(.77)	2.57(.87)	2.25(.80)	2.43(.78)
	F	.213	.693	.451	.129	.338	1.701	.132
	p	.887	.558	.717	.943	.798	.170	.941
Education	≤Middle <sup>(a)</sup>	2.38(.89)	2.87(.65)	2.09(.76)	2.19(.85)	2.30(.80)	2.23(.77)	2.34(.74)
	High <sup>(b)</sup>	2.58(.76)	3.11(.68)	2.35(.68)	2.51(.80)	2.58(.80)	2.69(.89)	2.66(.67)
	≥College <sup>(a,b)</sup>	2.59(.64)	2.96(.56)	2.22(.69)	2.46(.75)	2.59(.85)	2.43(1.01)	2.49(.56)
	F	.985	1.761	1.621	2.128	1.812	3.408	2.707
	p	.376	.176	.202	.123	.167	.036*	.071
Marriage status	Married	2.43(.057)	2.91(.62)	2.23(.52)	2.22(.74)	2.55(.66)	2.48(.96)	2.45(.56)
	Unmarried	2.54(.83)	3.01(.66)	2.24(.77)	2.42(.82)	2.48(.85)	2.50(.88)	2.53(.71)
	t	-.737	-.629	.015	-.995	.427	-.087	-.495
	p	.465	.531	.988	.321	.672	.931	.622
Living with spouse	Yes	2.47(.76)	2.84(.64)	2.15(.73)	2.22(.79)	2.38(.75)	2.26(.83)	2.45(.73)
	No	2.56(.79)	3.09(.63)	2.29(.73)	2.45(.81)	2.56(.85)	2.61(.91)	2.55(.66)
	t	-.682	-2.113	-1.055	-1.595	-1.220	-2.175	-.781
	p	.497	.036*	.293	.113	.225	.031*	.436
Smoking	Yes	2.64(.64)	3.09(.61)	2.33(.63)	2.69(.62)	2.58(.76)	2.69(.81)	2.70(.52)
	No	2.53(.83)	3.02(.66)	2.24(.77)	2.34(.85)	2.54(.85)	2.46(.91)	2.51(.72)
	t	.564	.386	.465	1.907	.222	1.099	1.164
	p	.574	.701	.643	.059	.825	.274	.247
Alcohol	Yes	2.56(.64)	3.15(.54)	2.29(.76)	2.53(.71)	2.51(.76)	2.63(.79)	2.59(.42)
	No	2.53(.85)	2.97(.69)	2.24(.74)	2.35(.84)	2.53(.84)	2.42(.91)	2.53(.75)
	t	.174	1.225	.247	1.028	-.126	1.129	.515
	p	.862	.212	.805	.306	.900	.261	.608
Living Years in Korea	<2 years	2.55(.832)	3.01(.56)	2.32(.72)	2.36(.77)	2.51(.76)	2.26(.90)	2.54(.71)
	2-<5 years	2.48(.63)	3.02(.67)	2.17(.72)	2.42(.81)	2.50(.80)	2.56(.88)	2.49(.65)
	≥5 years	2.58(.91)	2.96(.73)	2.24(.76)	2.39(.85)	2.53(.94)	2.63(.89)	2.52(.70)
	F	.167	.085	.479	.087	.015	2.115	.053
	p	.847	.918	.621	.916	.985	.125	.948
Monthly income	<100 M <sup>**</sup>	2.45(.86)	3.00(.82)	2.07(.74)	2.17(.84)	2.46(.88)	2.33(1.01)	2.35(.82)
	≥100 M <sup>**</sup>	2.51(.75)	2.96(.61)	2.28(.72)	2.39(.78)	2.42(.81)	2.50(.73)	2.54(.64)
	t	-.396	.246	-1.484	-1.420	.193	-.925	-1.264
	p	.693	.806	.141	.158	.847	.358	.209
Contact with family	<5 times	2.56(.80)	3.07(.57)	2.27(.76)	2.43(.78)	2.47(.81)	2.61(.89)	2.50(.69)
	≥5 times	2.62(.75)	3.12(.67)	2.21(.68)	2.40(.88)	2.71(.82)	2.54(.86)	2.68(.61)
	t	-.367	-.363	.415	.157	-1.408	.367	-1.259
	p	.715	.717	.679	.875	.162	.715	.211
One's country community	Have	2.40(.77)	2.89(.61)	2.20(.75)	2.25(.82)	2.36(.83)	2.46(.91)	2.42(.71)
	None	2.79(.77)	3.25(.62)	2.41(.70)	2.58(.68)	2.89(.71)	2.61(.83)	2.74(.61)
	t	2.333	2.638	1.282	1.920	3.045	.801	2.122
	p	.022*	.010*	.203	.058	.003*	.425	.036*
Korean Friend	Have	2.49(.78)	3.03(.65)	2.20(.73)	2.34(.86)	2.46(.83)	2.49(.85)	2.48(.71)
	None	2.63(.79)	2.99(.58)	2.39(.72)	2.52(.67)	2.61(.80)	2.55(1.01)	2.65(.60)
	t	-.889	.333	-1.278	-1.145	-.959	-.370	-1.077
	p	.376	.740	.240	.254	.339	.712	.221

\*p<.05, \*\*M: million won, Post hoc tests: dunnett T3 (a)<(b)<(c)

[Table 4] Difference of Acculturative Stress Subcategories according to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Continued)

(N=123)

Variables	Categories	Discrimination	Homesick	Hostility	Fearfulness	Cultural shock	Guilt feeling	Etc
		M(SD)	M(SD)	M(SD)	M(SD)	M(SD)	M(SD)	M(SD)
Experience of unfair treatment	Have	2.92(.81)	3.34(.51)	2.34(.69)	2.58(.72)	2.83(.87)	2.68(.88)	2.89(.52)
	None	2.45(.73)	3.00(.61)	2.22(.74)	2.41(.79)	2.38(.82)	2.53(.97)	2.51(.57)
	t	2.262	2.013	.580	.756	2.099	.534	2.104
	p	.027*	.048*	.564	.452	.039*	.595	.039*

\*p&lt;.05

1) 차별감은 모국공동체의 유무( $t=2.333, p=.02, p=.010$ ), 공공장소 부당 대우 경험 유무( $t=2.013, p=.048$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향수병은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모국공동체가 없는 경우, 공공장소 부당 대우를 경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향수병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3) 적대감과 4) 두려움의 경우 일반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5) 문화충격은 모국공동체 유무( $t=3.045, p=.003$ )와 공공장소 부당 대우 경험 유무( $t=2.099, p=.039$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모국공동체가 없는 경우와 공공장소 부당 대우를 경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문화충격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6) 죄책감은 성별( $t=3.138, p=.002$ )과 학력( $F=3.408, p=.036$ ), 배우자와의 동거유무( $t=-2.175, p=.036$ )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사후분석 결과 고졸이 중졸 이하보다,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죄책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7) 기타로 모국공동체가 없는 경우( $t=2.122, p=.036$ )와 공공장소 부당 대우를 경험한 집단( $t=2.104, p=.039$ )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논의

본 연구에서 이주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는 2.54점(총점 5점)으로 보통수준 보다 약간 높은 점수이었다. 이는 최근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Lee, Lee, Kim & Kim[7]의 연구결과인 2.52점과 거의 비슷하며, Roh[19]의 연구결과인 2.33점에 비해 약간 높은 점수이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의 문화적응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정도의 점수는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취약계층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위치에 비해 다소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모국의 여러

생활형편을 떠나 한국사회라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역설하며, 이주가 이들에게 또 다른 기회 부여라는 '코리아 드림'이 실현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뒷받침 한다.

이주노동자에게 이주란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다. 이들은 한국에서의 낮은 환경을 부적응하고 거부하기보다 한국에서의 안정적 정착과 수입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즉, 한국사회에서 체류한 시간과 경험에 비례하여 문화를 받아들이기보다 치열한 또 다른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 체류기간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으며, Lee[7]와 Noh[11]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러나 Choi[20]의 연구에서는 한국 체류기간이 길수록 스트레스가 낮아졌다는 상반된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낮은 이방인의 단순한 노동력으로 인식되어 문화적응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후 이주노동자의 지속적인 유입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주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긍정적 사고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에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며, 더불어 이주노동자들의 문화 적응력을 높여 국내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 사업이 수반되기를 기대한다.

국제결혼한 필리핀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차별, 언어 갈등, 법적 지위에 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연구한 Jaung[9]의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3년 미만 거주한 이주여성보다 3년 이상 5년 미만 거주한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배우자 및 주거 환경이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결과에서 이주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영역 중 향수병 다음으로 차별감이 높게 나타난 것과는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Nho와 Hong[2],



Noh[11]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국내에서 이주노동자들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1990년대는 주로 임금 착취나 불법체류, 산업재해 및 차별 등에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 최근 연구는 이들의 국내 정착,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인권보호, 한국어교육, 자녀양육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 [5-6,9,10,18-19]. 이는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다문화 가정 이 낮설지 않음을 반영하며, 이주노동자를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함은 물론 그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이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삶의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노력을 촉구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울증이나 낮은 자긍심, 불안감, 관계 갈등 등의 정신건강은 물론 신체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5,9,10]. 그 중 모국이 아닌 한국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이주노동자에게 향수병과 차별감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인 동시에, 이들이 정착하여 살기 원하는 한국사회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향수병은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고 적응하면서 겪게 되는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서 비롯된다. 또한 차별감은 단일민족이라는 한국사회의 강한 자부심과 인종적·문화적 배타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이 개방적이기 보다는 고임금 시대의 심각한 인력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이주노동자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 소외계층으로 차별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57% 이상이 한국인의 차별경험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Nho & Hong[2]의 연구결과 또한 본 연구 대상자의 31.4%가 ‘한국인의 편견’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연구결과 또한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도 모국공동체가 없거나 공공장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는 대상자일수록 차별감과 향수병은 더 강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공공장소 부당 대우를 경험한 경우 자신이 외국인인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모국공동체의 부재가 조국이나 가족에 대한 더 강한 그리움을 자극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이는 모국인 친구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해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는 Lee, Lee, Kim & Kim[7]과 Roh[19]의 연구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모국공동체의 주 목적은 친목도모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모임은 이주노동자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료와 함께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의 매개체로 여겨지며, 모국공동체 참여 활성화 방안이 이주노동자의 향수병 증재전략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에게 한국사회가 더 이상 이방의 나라가 아닌,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터전이어야 할 것이며, 모국공동체와 같이 공동된 정서를 공유하며 희노애락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의식고취와 더불어 국가차원의 적절한 지원과 증재가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의미 있는 결과이다. 더불어,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역할을 설명하면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지의 만족도가 중요하다고한 선행 연구결과[7,20]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 이들의 지지체계의 양과 질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고졸인 경우가 중졸 이하 대상자 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18]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은 정서적인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한 점이나 Choi[20]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로, 학력수준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이 모색되어야 한다.

죄책감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더 높게 나타나 경제적인 도움을 얻고자 한국사회로 유입된 이주노동자가 많으며, 특히 남자의 경우 가장으로서 모국에 두고 온 가족과 친지들에게 더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이 임의표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외생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자료수집 전 대상자 일치도 과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과정은 면대면 설문으로 실시되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한국어 이해가 어려운 연구대상자에게 통역을 제공해야 하는 절차가 수반되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어 설문지와 연구대상자의 모국어를 고려하여 해당 모국어로 번역한 검증된 설문지를 병행한 연구진행을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과 그로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의 타국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국내에 정착하면서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 순기능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에 적응

하여 건전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정착을 돕고, 이들의 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이로 인한 간호중재 개발 및 사회제반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는 보통 수준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를 7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한 결과 향수병, 차별감, 기타, 문화충격, 죄책감, 두려움, 적대감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는 대상자의 학력과 국내 모국공동체 유무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7개 하위영역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차별감은 모국공동체의 없는 경우와 공공장소 부당 대우 경험 이 있는 경우에 차별감을 느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향수병은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모국공동체가 없는 경우에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문화충격은 모국공동체 유무와 공공장소 부당 대우 경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모국공동체가 없는 경우와 공공장소 부당 대우를 경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문화충격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죄책감은 남자가 여자보다, 고졸이 중졸이하 보다,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죄책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타 영역에서는 모국공동체의 유무와 공공장소 부당 대우 경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중국 및 동남아시아인 외 한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대단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의 다양한 변수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및 이주노동자 특화 프로그램 등의 사회제반사항을 수립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References

- [1] H. Im, H. Y. Lee, "Resilience and Mental Health among Migrant Workers in Busan, Korea", *Korean J health Educ Promot.* 29(5), pp. 13-26. 2012.
- [2] C. R. Nho, J. J. Hong, "Adaptation of migrant workers' children to Korean society: adaptation of Mongolian migrant worker's children in Seoul, Gyeonggi Area", *Journal of Korean children welfare.* 22, pp. 127-159, 2006.
- [3] B. D. Choi, Y. K. Kim, "Foregin Immigrants' Recognition on Related Policies and Supporting Activitie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7(4), pp. 357-380, 2011.
- [4] J. W. Berry,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pp. 5-68. 2006.  
DOI: <http://dx.doi.org/10.1080/026999497378467>
- [5] J. Y. Park, "Mediating Effect of Hope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Women Immigrants", *The Korea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0(11), pp. 665-672. 2012.
- [6] H. W. Park, "Acculturative Stress and Mental Health of Korean Women Living in UK",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0(8), pp. 308-316, 2010.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0.10.8.308>
- [7] S. H. Lee, Y. J. Lee, S. Y. Kim, S. J. Kim,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in Migrant Workers", *J Korean Acad Nurs.* 39(6), pp. 899-910. DOI: 10.4040/jkan.2009.39.6.899  
DOI: <http://dx.doi.org/10.4040/jkan.2009.39.6.899>
- [8] J. Griffin, V. Soskolne,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Thai migrant workers in Israel",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7, pp. 769-774, 2003.  
DOI: [http://dx.doi.org/10.1016/S0277-9536\(02\)00447-1](http://dx.doi.org/10.1016/S0277-9536(02)00447-1)
- [9] A. H. Jaung, H. J. Kim, H. J. Jeong, "A study on Health Status,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of Filipino Marriage-Migrant Womw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12), pp. 5509-5517, 2011.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1.12.12.5509>
- [10] Y. S. Lee, M. H. Jeo, S. H. Hong, "A study of the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the martial Conflicts of Immigrant Women Who Are married to Korean Me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6(4), pp. 171-194, 2012.
- [11] E. M. Lim, S. J. Jung, S. J. Lee, "Marriage-Based

- Immigrant Women's Cultural Adaptation Types and Acculturation Stress ", Korea Counseling Association, 11(3), pp. 957-973. 2010.
- [12] Y. L. Kim, "A study on the social cultural adaptation of immigrant workers in Korea",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o-Historical Studies. 11, pp. 103-138, 2008.
- [13] H. M. Kim, S. H. Kim, "Acculturative Stress of Foreign Migrant Workers and Contributing Factors -Examining the Role of Social Support-", Mental Health & Social Works. 30, pp. 78-100, 2008.
- [14] H. M. Lee, S. H. Kim, "Acculturative stress of foreign migrant workers and contributing factors-Examining the role of social support", Mental Health & Social Works, 30, pp. 78-100, 2008.
- [15] Y. C. Kim, "Migrant workers' working problems", pp. 307-340, Unpublished Korean foreign law research book, Law Research Cent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1995.
- [16] S. D. Sandhu, R. B. Asrabadi,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 Psychological Reports. 75(1), pp. 435-448, 1994.  
DOI: <http://dx.doi.org/10.2466/pr0.1994.75.1.435>
- [17] S. J. Lee, "The relationship of Stress in the process of cultural influx, Belief system & Social support of Foreign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1996.
- [18] S. R. Lee, "A Study on Acculturative Stress of North Korean",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5, pp. 209-247, 1997.
- [19] Y. S. Roh, "A study on Acculturative Stress of the Foreign Work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4.
- [20] T. I. Choi, "Th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of Foreigners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1.

---

**김 성 희(Sunghee Kim)**

[정회원]



- 200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간호, 간호교육

---

**김 성 해(Sung Hae, Kim)**

[정회원]



- 2012년 2월 : 경희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학석사)
- 2012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간호교육이노센터 연구원
- 2012년 9월 ~ 현재 : 경북전문대학교 간호과 겸임교원

<관심분야>  
성인간호, 간호교육, 시뮬레이션교육